

한·미 FTA 협상 출범 선언-의미와 파장

# 피해 우려품목 많아 농업부문 손실 적지 않을 듯

피해 예상액 1조~2조3천억, 축산물·과일·채소·낙농제품 등 전반에 '농업 생산 감소' 농약 등 농자재사업에도 불똥, 민감성 충분히 반영돼야

**자** 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협정을 맺는 당사국간만 배타적으로 무역특혜를 부여한다. 가령 우리나라가 A라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현행 40%의 쇠고기 관세를 50% 인하한 경우 A라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지만 그 밖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쌍무적인 FTA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등과 같은 다자주의와

차이가 있다. 시장 개방의 폭 면에서 FTA는 다자간협상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동시다발적 FTA로 인해 향후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 시나리오별 피해액 모두 커

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개시 선언에서 밝혀진 FTA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5월초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협상 개시 선언부터 미국은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시장개방'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우리 농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미 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시나리오별 FTA에 의한 관세 감축 또는

인하효과만을 고려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 쌀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재협상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곡물(보리 등), 유지작물(대두, 참깨 등)에 대한 관세는 국내 수매제도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로 각각 50%, 30%, 10%만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설정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① 시나리오 1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단, 고율관세 품목은 50% 관세 감축)를 가정하였다. ②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3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한다. ③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1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서는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품목군별로는 축산물(3,380억원~9,031억원), 과일·채소(1,200억원~2,554억원), 기타작물(1,792억원~1,963억원), 낙농제품(142억원~1,110억원) 순으로 생산 감소가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율 면에서는 유지작물(49.6%), 곡물(18.6%), 축산물(14.5%) 순이다.

### 직간접 영향, 생산액 피해 예외 없어

한-미 FTA시 가장 큰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축산물 중에서는 현행 관세가 40%인 쇠고기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쇠고기 수입가격이 29% 정도 저렴해져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잠식할 것이다. 미국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주로 목초 급여육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호주 또는 뉴질랜드산으로부터 미국산으로 수입이 대체되기 보다는 국내 중등육을 중심으로 한 소비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프라임급 냉장육이 수입될 경우 일본의 화우처럼 국내 고급육 시장도 상당정도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쇠고기 수입증가는 국내 돼지고기 소비감소로 이어져 돼지 사육농가의 간접피해도 우려된다.



권 오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단위: 억원, 명, %)

|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
| 농업 생산액 | △22,830<br>(-3.7)  | △18,003<br>(-3.2)  | △11,552<br>(-1.9) |
| 농산물 수입 | 31,719<br>(155.4)  | 25,265<br>(123.8)  | 18,353<br>(89.9)  |
| 농업 고용  | △142,816<br>(-6.2) | △111,494<br>(-4.9) | △71,505<br>(-3.1) |

\*괄호 안은 2001년 대비 증감률임(단, 고용은 2000년 대비)

낙농제품은 현재 관세가 36%인 혼합분유 형태로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된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176%인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

가 혼합분유 관세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이들 낙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분유 시장에 영향을 주어서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일·채소 중에서는 오렌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신선과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렌지의 경우 현행관세가 50%로 높아 관세가 낮아질 경우 국내 감귤 농가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며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 등도 현행 관세가 45%로 높은 편이어서 검역문제가 풀리고 관세가 낮아지면 국내 과일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채소 중에는 고율관세 품목인 마늘, 양파 등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작물 중에는 인삼, 잎담배 등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인삼의 경우 현행 관세가 200%가 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저가의 미국 인삼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국내 인삼 농가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 유지작물 중에는 대두 부분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대두는 5% 이하의 저율관세가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용도를 제한받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487%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두 생산액이 2004년 기준 4,300 억원에 이른다. 고율관세가 대폭 낮아 질 경우

국내 대두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분석에서 확인된 사실 중의 하나는 시나리오에서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쌀의 경우도 타 품목 개방 확대로 생산자원이 쌀 부문으로 이동하여 쌀 생산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 억원~3조 1,719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농산물 중 특히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 품목군은 낙농제품(157~527%), 기타작물(337~338%), 채소·과일(71~218%), 축산물(91~215%) 등이다.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해당 부문의 고용도 줄어든다. 고용 감소 정도는 생산액의 감소 정도와 취업유발계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농업 부문은 FTA로 생산이 감소하면 그만큼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업부문에서 방출되면 타 산업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워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서는 71,505~142,816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감소가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 품목군은 축산물(19,569~52,280명), 유지·기타작물(20,066~25,464명), 채소·과일(8,870~18,876명) 순이다. 고용감소 폭이 큰 부문은 곡물(3.5~19.5%), 낙농(2.3~17.8%), 축산물(5.3~14.3%) 순이다.

한-미 FTA는 농약 등 농자재 산업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TA로 농업생산이 감소하면 농약 수요도 그만큼



위축되어 농약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로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기타작물은 최대 8.4%, 과일·채소는 2.9%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어 농약 사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더구나 수입개방의 대응으로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일환으로 유기농산물 등과 같이 농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경우 농약수요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감성 반영·열린협상·자구노력 있어야**

한-칠레 FTA시 피해 우려가 컸던 품목은 포도와 키위 등 일부 과일정도였다. 협상이 진행 중인 아세안과의 FTA에서도 쌀을 제외할 때 열대과일, 닭고기, 일부 양념채소류 정도를 특히 중요한 품목들로 꼽을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의 FTA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과 낙농제품, 오렌지 등 과일, 대두를 포함한 곡물, 인삼, 천연꿀 등 우려되는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손실이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FTA가 될 것이다.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특히 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과 설탕제품, 일부 낙농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면화, 땅콩, 연초 등과 같은 민감품목은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점, 유럽연합이 멕시코,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 58%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협상진행과정은 물론 국내대책 마련 시 농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원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겠지만 FTA 파장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농업계의 자구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틈새시장 개척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필수적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Y